

로이적응모델의 가족건강사정에의 적용가능성

장 선 옥

안동전문대학 간호과

본 연구의 목적은 로이의 적응모델이 가족건강사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이 한국가족에 적용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A시에 살고 있는 169명의 성인에게 가족건강의 의미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로이의 적응모델에 의해 분석하였다. 가족적응양식은 Hanson (1984)이 만든 4가지 가족적응 양식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가족적응양식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가족적응양식에 대한 개념을 117개로 생리적양식 47개 개념, 자아-개념양식 56개 개념, 역할기능양식 9개 개념, 상호의존성양식 5개 개념으로 분류되었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자극은 로이의 정의를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가족자극에 대한 개념은 39개로 초점자극에 대한 개념 19개, 연관자극에 대한 개념 19개, 잔여자극에 대한 개념 1개로 분류되었다. 이는 로이의 적응모델이 한국가족에 적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가족건강에 대한 개념은 생리적양식에서는 생존적 의미를 잘 나타냈으며, 가족 자아-개념양식에서는 가족성장의 의미를 잘 나타냈고 가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특히 가족의 화목을 강조했다. 역할기능양식에서는 가족구성원의 관리, 통제보다는 연속성의 의미가 강조되었고, 상호의존성 양식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나 강하게 나타내지는 않았다.

가족자극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족의 불화, 가족구조에 대한 변화, 가족구성원의 질병이 자극으로 작용하였고, 가족외적인 문제보다는 가족내적인 문제가 초점자극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로이적응모델을 가족건강사정에 적용했을 때 몇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로이는 제1단계 가족건강사정에서 가족적응양식을 사정하고 제2단계사정

에서는 가족적응에 영향을 주는 자극을 사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적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단계에서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자극을 사정하여 가족구성원 개인의 요구, 가족구성원내의 변화, 가족구성원간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해당되는 초점자극과 지지, 양육, 사회화와 같은 연관, 잔여자극을 사정한 후 이러한 자극에 대한 가족의 적응양식을 사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가족적응수준은 초점, 연관, 잔여자극의 강도에 따라 가족적응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Whall(1991)은 “가족적응양식을 사정하고 단지 자극에서 중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체계의 투입, 내적과정, 회환, 산출의 순서에 따라 사정한 후, 간호중재단계에서 자극과 적응양식을 변화시켜서 가족의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로이는 연관자극, 잔여자극과 같은 부가적인 자극을 내적과정(control process)인 지지, 양육, 사회화와 동일시하였는데 논리적 근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로이의 적응모델은 가족건강 사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한국가족에 적용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더 나아가 앞으로 가족적응이론과 가족간호수행이론이 산출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